

#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이혜경<sup>1\*</sup>, 최혜원<sup>2</sup>, 김민지<sup>2</sup>, 김영서<sup>2</sup>, 김지선<sup>2</sup>, 박다인<sup>2</sup>, 이희수<sup>2</sup>, 정수현<sup>2</sup>, 최윤수<sup>2</sup>  
<sup>1</sup>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중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Anxie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Situation

Hyea-Kyung Lee<sup>1\*</sup>, Hye-Won Choi<sup>2</sup>, Min-Ji Kim<sup>2</sup>, Young-Seo Kim<sup>2</sup>, Ji-Seon Kim<sup>2</sup>,  
Da-In Park<sup>2</sup>, Hee-Su Lee<sup>2</sup>, Su-Hyun Jung<sup>2</sup>, Yun-Soo Choi<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sup>2</sup>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에서 11월까지 충남, 충북, 경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r=-.151, p=.039$ ).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 5.2%( $\beta=-.24, p=.001$ ),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0%( $\beta=-.17, p=.015$ )의 설명력이 있어 총 8.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해서는 전공만족을 증가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키워드** : 코로나19,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xiety about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from it during the practice on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during COVID-19 and be used as baseline data to promote this professionalism. The target is 187 juniors and seniors in nursing college located in Chungnam, Chungbuk, and Gyeongbuk with experience in the clinical practice,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21. The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2.0. Nursing professionalism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r=-.151, p=.039$ ). In term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nursing professionalism,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satisfaction in major was 5.2%( $\beta=-.24, p=.001$ ), and that of stress from the clinical practice was 3.0%( $\beta=-.17, p=.015$ ), which explains a total of 8.2%. Major satisfac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predicting greater nursing professional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necessity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reduce their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during COVID-19.

**Key Words** : COVID-19,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Hyea-Kyung Lee(lhk1214@jwu.ac.kr)

Received March 11, 2022

Revised April 8,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 1. 서론

### 1.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3월에 신종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한 이후[1] 코로나19의 확산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중 오미كرون 변이는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의 출현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에 대한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3].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문제는 간호교육에도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4]. 특히 임상실습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감염 예방과 환자와 간호대학생의 안전을 위해 중단되었으며[5], 그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임상실습 병원의 정책에 따라 임상실습이 중단되기도 하고 재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상실습교육의 중단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온라인실습 등의 대체실습을 허용하였다[6].

그러나 대체실습은 제한된 임상실습 경험과 환자와의 직접 접촉의 상실, 실제 임상실습과의 격차 등으로 교육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5], 일상적인 임상실습 중에도 발생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코로나19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대학생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게 나타났고[9],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을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다[10]. 또한 임상실습 시 감염위험성에 대해 항상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11],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실습을 병행하는 타과 대학생보다도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13].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간호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체험하고[14], 임상실습 중 이루어지는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한다. 또한 임상실습 중 느끼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

호학문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학업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그리고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게 된다[16].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나 신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로[17],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은 전문직업인의 자아개념을 형성해가고 있는 단계이며, 이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업인 모델을 통해 발전하며 학교에서는 교육자를 통해 갖춰지기 시작하여 임상 현장의 선배 간호사에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19] 임상실습 중 형성되는 간호전문직관은 이들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에 적응하고 간호사로서의 역할 인식과 긍정적인 직업관을 세우는데 필수적이다[20].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상실습 교육환경, 셀프리더십, 실습소속감[21],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22], 전공만족도[23], 스트레스 대처 등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의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관찰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감염위험성에 대한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 방안 마련의 지침에 활용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추 후 간호사로서의 긍정적인 직업관 형성과 전문직 간호사로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시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증진과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불안과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확인한다.
- 2)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을 확인한다.
- 3)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내 4개 대학교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4학년을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동안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실습과 원격실습을 병행하여 시행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실습을 2주 이상 실시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실습 중 실습중단이 있었거나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배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 수를 계산하였다.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 1개, 독립변수 7개를 입력하여 160명이 산출되었다. 예상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13부(일반적 특성 2부, 보통만 체크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18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임상실습 불안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불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통증숫자평정척도인 NRS(Numeric Ra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통증에 대한 자가 보고식 10점 평점 척도로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통증 대신 불안을 표시하였다. 왼쪽 끝 '불안하지 않음'은 0점을, 오른쪽 끝 '매우 불안함'은 10점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24].

#### 2.3.2 임상실습 스트레스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와 Srivastava [25]가 개발하고 Kim과 Lee [2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 [2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29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 [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임의 추출된 간호학과 학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글 온라인 설문 방법으로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에 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

석하였고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임상실습 중 불안과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평균 나이는 21.7살이었고, 여학생이 133명(76.5%)으로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139명(74.3%)으로 많았고, 3학년이 126명(67.4%)으로 4학년보다 많았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131명(70.1%), 중간인 학생은 53명(28.3%), 낮은 학생은 3명(1.6%)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21.73±2.41
Gender	Female	143(76.5)	
	Male	44(23.5)	
Religion	Yes	48(25.7)	
	No	139(74.3)	
Grade	3	126(67.4)	
	4	61(32.6)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Good	131(70.1)	
	Moderate	53(28.3)	
	Bad	3(1.6)	

#### 3.2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불안은 4.77점(0~10)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70점(1~5),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간호전문직관은 2.64점(1~5)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Variables	M±SD	Range
Clinical practice anxiety	4.77±2.43	0~10
Clinical practice stress	3.70±0.44	1~5
Nursing professionalism	2.64±0.63	1~5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 불안은 대상자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학년(2.47±.60)이 4학년(2.99±.5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5.67, p<.001$ ). 간호전문직관의 경우 전공만족도에서 만족(3.78±.43), 보통(3.51±.44), 불만족(3.78±.37)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6.91, p=.001$ ). 사후 검정결과(Scheffé test)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 in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Female	1.71 ±.46	-.76 (.449)	2.67 ±.68	-1.26 (.209)	3.70 ±.45	-.09 (.924)
	Male	1.57 ±.51		2.53 ±.68		3.71 ±.42	
Religion	Yes	1.79 ±.42	-.47 (.637)	2.70 ±.67	.75 (.450)	3.74 ±.43	.64 (.518)
	No	1.86 ±.36		2.62 ±.61		3.69 ±.45	
Grade	3	1.21 ±.42	-1.59 (.123)	2.47 ±.60	-5.67 (.001)	3.70 ±.45	-.09 (.924)
	4	1.50 ±.51		2.99 ±.55		3.71 ±.42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Good <sup>a</sup>	4.77 ±2.55	.40 (.670)	2.67 ±.66	1.99 (.139)	3.78 ±.43 <sup>a</sup>	6.91 (.001) a)b
	Moderate <sup>b</sup>	4.69 ±2.13		2.62 ±.55		3.51 ±.44 <sup>b</sup>	
	Bad <sup>c</sup>	6.00 ±3.00		1.94 ±.66		3.78 ±.37 <sup>c</sup>	

#### 3.4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 $r=.267, p<.001$ )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은 음의 상관관계( $r=-.151, p=.039$ )를 보였다(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Clinical practice anxiety r( $\rho$ )	Clinical practice stress r( $\rho$ )	Nursing professionalism r( $\rho$ )
Clinical practice anxiety	1		
Clinical practice stress	.267** ( $\llcorner$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032 (.662)	-.151* (.039)	1

**3.5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총 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전공만족으로  $5.2\%(\beta = -.244, p = .001)$ 의 설명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0\%(\beta = -.174, p = .015)$ 의 설명력이 있어 이 두 개의 변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총 8.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가정 검증을 위해 다중공선성과 잔차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를 확인하였다. VIF는 1.009로 10 이상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0.99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Durbin-Waston 으로 확인한 결과 1.905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준잔차를 확인한 결과 -2.73~2.88로 2에 가까우므로 등분산성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B	S.E	$\beta$	t	p	R <sup>2</sup>	F	p
constant	4.320	.166		25.957	$\llcorner$ .001		8.22	$\llcorner$ .001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200	.064	-.244	-3.44	.001	.052		
Clinical practice stress	-.123	.050	-.174	2.447	.015	.082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은 4.7점(1~10)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상실습을 지속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은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28-29], 임상실습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감염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임상실습을 지속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상실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상실습 기관의 변경, 임상실습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수시로 바뀌는 임상실습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 실정이다[2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감소하였고 수시로 변경되는 임상실습 일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30]. 코로나19 상황 이전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ang[31]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불안 정도는 37.7점(20~80)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wang과 Lee [32]의 연구에서 학년간 임상실습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의 불안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인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불안점수가 높은 것과 같은 결과이다. 불안의 정도 또한 본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에 비해 높은 정도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안 측정된 도구는 선행연구[31,32]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불안을 측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처럼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염관련 지식과 예방 행위를 위한 임상실습 안전 교육과 임상실습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7점(1~5)로 중간 이상 정도를 보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임상실습에 변동이 있고 예측하기 어려

움에 따라 일상생활도 불안정해진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의 지속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주로 가정에 머물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었다[28]. 또한 Chon 등 [33]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및 사회활동 제한은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 및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하여 우울감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활동 유지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비대면을 통한 활동 활성화 즉 비대면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동료 및 교수자와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살펴보면 2.6점(1~5)으로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상황 전 모든 학년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4,35] 결과는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36], 본 연구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감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병원 환경으로 판단되며, 추 후 임상현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감염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감염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간호전문직의 정체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9].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34,36] 모든 학년을 포함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만을 연구한 본 연구와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 전, 후 비교 또한 연구결과가 다르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들을 면담한 내용을 통해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28],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국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29].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 불안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친구 및 교수자와의 비대면 대화를 통해 임상실습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교환 및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21,33]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No와 Kim [34]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전공만족도로 5.2%,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0%의 설명력을 보였고 임상실습 불안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전공만족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3,34,35]와 같은 연구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임상실습 환경에서도 전공만족이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유는 진로 결정 시 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했으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임상실습이 오히려 간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입학 후 간호대학생이 간호학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36],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 과정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32,36]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로 인한 감염 불안과 활동 제약을 통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 중 3학년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고, 대상자의 많은 수

를 차지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코로나19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여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것을 보였고[38], 간호전문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임상실습 불안은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선행연구[28,33]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대상자 중 3학년의 수가 많고, 3학년의 불안 정도가 4학년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임상실습 전 충분한 감염 교육과 해당 기관의 철저한 방역 준수로 인한 정보의 공유가 잘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도구와 선행연구와의 연구결과를 측정하는 불안 도구가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차후 신뢰도가 높은 불안의 도구로 변경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 교육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졸업 후 간호사로써의 긍정적인 직업관형성과 전문직 간호사로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여 편의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써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파악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 임상실습의 운영체계 및 실습 내용에서 더욱 효과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코

로나19 상황의 수준에 따라 임상기관과 학교 및 학생 간의 유연한 대처 및 신속한 소통을 통해 실습운영을 원활히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임상실습 내용과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없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전공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실습 불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변수 외 다른 변수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COVID-19) pandemic[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cited 2020 Mar 11].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COVID-19, Omicron mutation.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3] S. W. Jung & M. S. Koo. (2021). Variation virus is in full swing in Korea, increased anxiety despite acceleration of vaccination [Internet]. Seoul: NEWSIS; [cited 2021 May 15]. Available fr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1\\_0001437607&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1_0001437607&cID=10201&pID=10200)
- [4] M. Tomietto, D. Comparcini, V. Simonetti & G. Cicolini. (2020). Nursing education: challenges and perspectives in a COVID-19 age. *Professioni Infermieristiche*, 73(3), 131-132. DOI: 10.7429/pi.2020.733131
- [5] C. G. Lee & J. H. Ahn. (2020).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42-152. DOI: 10.5762/kais.2020.21.12.142
-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1). *College handbook for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58-9.
- [7] E. Y. Kim. (2021). Online transition of educational methods to COVID-19 nursing practice quality 'down' [Internet]. Seoul: Young Doctor; 2020

- [cited 2021 June 4]. Available from: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374>
- [8] H. Aslan & H. Pekince. (2021). Nursing students' views o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perceived stress level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57(2), 695-701. DOI: 10.1111/ppc.12597
- [9] W. Cao, Z. Fang, G. Hou, M. Han, X. Xu, J. Dong & J. Zheng. (202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 COVID-19 epidemic on college students in China. *Psychiatry Research*, 287, 112934. DOI: 10.1016/j.psychres.2020.112934
- [10] J. Shigemura, R. Ursano, J. C. Morganstein, M. Kurosawa & D. M. Benedek. (2020). Public responses to the novel 2019 coronavirus(2019-nCoV) in Japan: Mental health consequences and target population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4(4), 281-282. DOI: 10.1111/pcn.12988
- [11] J. H. Park, S. J. Chang & K. S. Kim. (2017). Correlation between the Preventive Behaviors 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d the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of Medically Inclin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7(4), 341-351. DOI: 10.17135/jdhs.2017.17.4.341
- [12] S. Y. Kim & M. S. Shin. (2017). A Study of the Stress Encountered in Clinical Practice by Students Majoring in Speech-Language Patholog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6(2), 113-127. DOI: 10.15724/jslhd.2017.26.2.010
- [13] G. S. Choi. (2017).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Coping Methods of Emergency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l Science*, 10(2), 44-52.
- [14] J. J. Yang. (2003).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Fundamental Nursing*, 9(3), 64-72.
- [15] H. S. Kang & W. O. Kim. (2002). Changes in the image of the nurse for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9(3), 379-387.
- [16] O. S. Lee & J. H. Lim. (2021).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5), 479-488. DOI: 10.14400/JDC.2021.19.5.479
- [17] M. J. Schank & D. Weis. (2001).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17(5), 226-231.
- [18] Y. S. Moon & S. J. Han. (2011).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72-79. DOI: 10.5977/JKASNE.2011.17.1.072
- [19]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 [20] G. S. Oh & M. K. Lee. (2015).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173-4-185. DOI: 10.15207/JKCS.2015.6.5..173
- [21] C. H. Kim & J. Y. Kim. (2019).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5(1), 5-16. DOI: 10.5977/jkasne.2019.25.1.5
- [22] K. T. Jung et al. (2018).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1), 23-36.
- [23] E. H. Hwang & S. J. Shin. (2017).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3(1), 97-108. DOI: 10.5932/JKPHN.2017.31.1.97
- [24] M. P. Jensen, P. Karoly, E. F. O'Riordan, F. Jr. Bland & R. S. Burns. (1989).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acute pain. An assessment of the utility of 10 indices. *The Clinical Journal of Pain*, 5(2), 153-159. DOI: 10.1097/00002508-198906000-00005
- [25] D. L. Beck & R. Strivastava.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26]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27]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10.

[28] D. H. S. Kang & J. H. Yang. (2021).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3(5), 509-521. DOI: 10.7475/kjan.2021.33.5.509

[29] H. Aslan & H. Pekince. (2021). Nursing students' views on the COVID 19 pandemic and their perceived stress level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57(2), 695-701. DOI: 10.1111/ppc.12597

[30] C. K. Lee & J. H. Ahn. (2020).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42-152. DOI: 10.5762/KAIS.2020.21.12.142

[31] E. Y. Kim & S. H. Yang. (2015).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417-425. DOI: 10.11111/jkana.2015.21.4.417

[32] S. J. Hwang & M. I. Lee. (2020). Perceived Knowledge, Anxiety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Performance on COVID-19 by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2), 459-468. DOI: 10.14400/JDC.2020.18.12.459

[33] S. H. Chon, E. J. Bae & J. S. Kim. (2021). The college students' depressive symptoms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a web-based cross-sectional survey. *Nursing and Health Issue*, 26(1), 7-10. DOI: 10.33527/nhi2021.26.1.10

[34] H. A. Cho & N. H. Kim. (2014).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48-557. DOI: 10.5977/jkasne.2014.20.4.548

[35] M. H. Lee, S. J. Kang & H. S. Hyun. (2019). Relationship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5(4), 317-328. DOI: 10.11111/jkana.2019.25.4.317

[36] J. H. No & E. Y. Kim. (202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7(4), 519-526. DOI: 10.17703/JCCT.2021.7.4.519

[37] I. S. Lee, M. K. Jeon & M. Y. Lee. (2020). Stres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3), 298-306. DOI: 10.5953/JMJH.2020.27.3.298

[38] H. J. Ju. (2017).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213-224. DOI: 10.14400/JDC.2017.15.8.213

이혜경(Hyea-Kyung Lee)

[정회원]



- 2012년 8월 : 공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4년 7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운동, 통증, 건강증진, 리더십
- E-Mail : lkh1214@jwu.ac.kr

최혜원(Hye-Won Choi)

[학생회원]



- 2020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불안, 통증, 보건
- E-Mail : 1024chw@jwu.ac.kr

김민지(Min-Ji Kim)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보건
- E-Mail : mji6948@naver.com

김영서(Young-Seo Kim)

[학생회원]



- 2020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간호, 감염, 건강
- E-Mail : kaelin0126@gmail.com

김 지 선(Ji-Seon Kim)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간호, 보건
- E-Mail : jeeson2004@naver.com

박 다 인(Da-In Park)

[학생회원]



- 2020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투약, 호스피스
- E-Mail : 46chemdehdwl@naver.com

이 희 수(Hee-Su Lee)

[학생회원]



- 2020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안과학, 간호학
- E-Mail : eksfo11@naver.com

정 수 현(Su-Hyun Jung)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생명, 보건
- E-Mail : suh020306@jwu.ac.kr

최 윤 수(Yun-Soo Choi)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의료, 간호, 보건
- E-Mail : cyunsoo151@gmail.com